

코스피	2517.37	코스닥	728.29
	(-19.43)		(-0.45)
금리	2.573	환율	1453.50
	(+0.003)		(+22.20)



트럼프 관세전쟁 시작... 韓 전자·車·배터리 등 직격타

4일부터 加·멕시코 수입품 25% 중국산엔 10% 고율 관세 적용

삼성·LG·기아·포스코 등 비상 현지공장 증설·생산 차질 우려 한국 무역흑자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사들 다수가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고 이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의 추가 관세만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한 조치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관세 부과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보복 방침을 밝혔지만 보복에는 재보복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캐나다에 대한 행정명령

을 보면 "만약 캐나다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 보복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조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포스코 등이 현지 공장을 가동하며 추가 증설하거나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 2020년 1100만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멕시코 투자는 2022년 3억9600만달러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는 지난해 1~11월 K3 17만 5000대, K4 6만4000대, 투싼 1만4000대 등 총 25만3000대가 생산됐고, 이 중 K3 12만8000대가 미국으로 판매됐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여타 공급망 참여기업들도 가동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이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GM(제너럴모터스)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합작공장을 현지에 건설 중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ooul.co.kr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향교에서 유림들이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입춘첩에는 봄이 시작되니 경사스러운 일을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글귀가 담겼다. /뉴시스

139명이 만들어낸 '딥시크' 돌풍

AI 천재 키운 中... 한국, 인재육성 도마위

中 정부 'AI강국' 목표 200조 투자 대학·산학 협력으로 인재유치나사 韓, 양성규모 초점·지원부족 한계

유학 경험이 없는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기업 딥시크(DepSeek)의 등장 이후, 국내 AI 인재 육성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분야의 우수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의과대학으로 향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홍콩 SCMP는 AI 추론 모델 '딥시크 R1' 관련 논문에 200여명의 젊은 중국 과학 인재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총 139명의 인력으로 알려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I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들 대부분이 칭화대, 베이징대 등 중국내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며, 대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딥시크는 설립 5개월 차인 2023년 11월 첫 모델인 '딥시크 코더'를 개발했고, 이어 지난해 '딥시크-V2'와 '딥시크-V3' 모델을 선보였다.

'딥시크 쇼크' 이후 국내 정치권은 다양한 주장과 비판을 쏟아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계 AI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며 "연구 인력 139명뿐인 작은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이뤄낸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동시에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정작 AI 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딥시크가 적은 비용에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개개인 인력은 사실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AI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이후다. 2030년까지 세계적인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AI 핵심 인재 1만 명 육성 ▲AI 관련 학과·연구소 확충 ▲산학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어 중국 교육부는 2018

년 'AI 인재 양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칭화대·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들은 AI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글로벌 AI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AI+X'라는 융합 교육 모델을 도입해 다양한 학과에서 AI를 접목하도록 했고, 2021년 이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선 AI 인재 육성을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2023년부터는 'AI 2.0' 전략도 추가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도 막대하다. 국가 차원의 투자만 추려도 이미 20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의 성과로, 중국은 현재 AI 논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표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인재 육성책이 산학 협력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인재 양성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탓에 기초 역량과 이론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 자율성과 연구비용 구조라는 지적이다. 연구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므로 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성과 중심의 연구비 지원이 혁신적인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벚꽃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내리나

정부-정치권 추경 공감대 형성 與 '李, 여야정협의체 참여' 요구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



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하는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복원하자"
▲ 이준석 "민경욱, 부정선거 공개 토론하자... 무식하면 용감하기라도 해야" /사진 뉴시스

▲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홍성국 내정... "경제 위기 극복"
▲ 조국혁신당 "내란 종식 위한 '원탁회의' 제안... 민주 우클릭 우려 있어"

▲ 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하자... 이재명의 추경 주장은 악어의 눈물"
▲ 해군기동함대사령부 1일 창설...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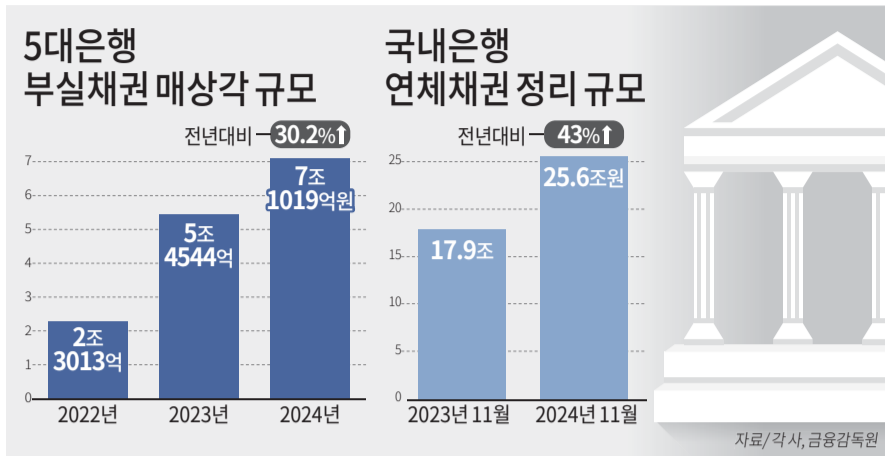
작년 5대은행 부실채권 30% 증가... 올해 규모 더 커지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장기지속
가계·기업의 연체율 늘어난 영향

작년 11월 연체채권 25.6조 정리
전년 17.9조 대비해 43% 급증
부실채권 매·상각 당분간 증가할 듯

지난해 5대 은행이 털어낸 부실채권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이후 부실을 정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도 부실채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상·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7조 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조 4544억원)과 비교하면 30.2%, 2년 전(2조 3013억원)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



가한 수준이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자산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별도로 관리하다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할값에 파는(매각) 방식으로 처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며 가계·기업의 연체율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52%로 1년 전(0.46%)과 비교해 0.06%포인트(p)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2년 11월 0.27%에서 2023년 11월 0.46%로 급격히 상승한 뒤 오름세를 지속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지

난해 11월 기준 0.41%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인 반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0.82%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중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9월 종료했다. 경기 회복 둔화와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더해 상환하게 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이후 부실 정리도 연체율을 키웠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등급)와 부실 우려(D등급)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실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행사가 공사에 들어가면 PF는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으로 넘어간다”며 “2금융권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은행권의 부실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17조 9000억원)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가 당분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은행의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1월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조원까지 증가한 연체채권 규모는 9월과 10월 각각 2조 5000억원 증가한 뒤 11월 2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여전히 연체채권 규모가 많아 관리 후 매·상각 하려는 채권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며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트럼프 관세폭격...’서 계속

경총 “경제학자들 전망 올해 국내성장률 1.6% 그쳐”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정부 예측 1.8%보다 0.2%p 낮아

64% ‘상당기간 성장 정체’ 응답
‘일정기간 하락 후 완만한 회복’ 35%

경제학자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1.6%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저성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은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장 많았으며,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중립적’은 34%,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지난달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보호무역 강화 등

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57%,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40%로 나타났다. 환율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

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3.0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등 관세 예고 국내 산업계-정부 정교한 대응책 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동맹국에 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가가 현실화될 경우 무역의 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6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는 오는 2분기부터 본격적이고도 광범위한 관세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멕시코, 캐나다 현지 진출 기업들도 문제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 전체가 정부와 함께 좀더 정교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韓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권

25~54세 男 노동시장 참여도 88.6%
OECD 회원국 평균 91.6%, 3%p 차이
체코 96% 1위, 일본 95.5% 2위 차이

주요국 국민 경제활동참가율 비교에서 우리나라 20대 중반~50대 중반 남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3개 분기 연속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5~54세 한국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6%로

집계됐다. 이들 나이대는 이른바 핵심 노동인구로 분류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인 91.6%(2024년 3분기)과 3.0%포인트(p) 격차를 보이며 38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이 2023년 4분기 91.5%, 1분기 91.5%, 2분기 91.5%에 비해 소폭 오른 반면, 한국은 2023년 4분기 이후 3분기째 하락했다.

우리나라 25~54세 남자는 2023년 4분기에 89.2%에 달했다가 2024년 1분기 89.0%, 2분기 88.9%, 3분기 88.6%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더 줄고 있다.

일본이 95.5%로, 체코(96.0%)에 이어 2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뉴질랜드가 92.6%, 호주가 90.5% 등 우리에게 앞섰다.

상위권에는 아이슬란드(95.1%), 헝가리(94.4%), 스위스(94.2%), 포르투갈(94.2%), 콜롬비아(94.1%), 멕시코(94.0%), 에스토니아(93.9%)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프랑스가 92.6%, 독일이 92.5%, 영국이 90.9%, 미국이 89.6%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유럽연합(EU) 회원국 27곳 평균은 92.1%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64세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도에서 81.1%로 11위에 자리했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고령층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연령대에서 프랑스는 65.9%, 영국은 72.2%, EU 평균은 74.7%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25~54세 여자의 경우, 71.7%로 38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일본(83.6%) 대비 10%p 이상, OECD 평균(76.2%) 대비 4%p 이상 참여도가 낮았다. 또 여자 역시 55~64세는 61.8%에 달하며 OECD 평균(58.9%)보다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높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식품업계, AI·로봇 등 푸드테크 고도화... 혁신성장 가속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현장 개선 빅데이터 통해 생산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수준 안전·환경 시스템 확립

식품업계에 푸드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됐고 생산 현장에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비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과 자동화 설비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식품제조기업들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과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력을 향상시킨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군에 스마트팩토리 'CJ블로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공식품 공장으로는 한국 최대 규모로 연간 12만톤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곳에선 '햇반', '비비고 왕교자'를 포함한 냉동 편의 식품, 육가공, 가정 간편식 등을 생산한다.

공장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생산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



CJ제일제당 진천 CJ블로섬캠퍼스 전경.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에 약 1조원을 투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식품 통합생산기지(블로섬 캠퍼스)를 건설했다. /CJ제일제당

또한 스마트 HACCP 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오염물질 및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고효율·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완벽한 식품안전·친환경 시스템을 갖췄다.

농심은 업계 최초로 '사물인식 프로그램'을 적용해 품질 관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예로 포장의 접합 부분 패턴이 깨져 있을 경우 AI가 감지해 불량 제품으로 판단한다. 품질과 용량 검사도 AI가 담당한다.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제각각인 면의 굵기를 제품에 따라 다르게 하고 면발 수, 제품 무게도 일정하게 조정한다. 농심은 위생 절차, 면·스프 모양, 포장 불량, 수량 부족, 소비기한 표시 검사 등 5가지 공정에 AI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심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연간 5억개 규모라면 생산이 가능한 녹산 수출전용 공장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공장 설립을 위해 1918억원을 투자했다.

녹산 수출전용 공장은 농심형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품질 검사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고장 및 사고를 예측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삼양식품도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생산성을 높였다. 2022년 완공된 밀양1공장의 경우 자동화 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수동 물류센터 대비 30% 수준의 공간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

으며 운영인력 생산성도 기존 대비 70% 이상 향상시켰다. 밀양1공장 가동 후 삼양식품 전체 연간 평균 생산량은 기존 14억4000개에서 20억개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내에 완공 예정인 밀양2공장도 생산 혁신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팩토리다.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전체 제조 공정의 효율을 높인다. 향후 탄소배출량, 태양광 발전량 등 친환경 정보도 통합 관리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포부다.

건강기능식품 기업 중에서는 KGC인삼공사가 대표적이다. KGC인삼공사 원주공장은 '선별-세삼-증삼-건조-추출-농축-충전-포장 등' 단계별 홍삼 제조공정에 자동화 공정을 접목했다.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파우치 비전검사기, 초고속 파우치 충전기, 저손상수삼세척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스마트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건강기능식품 GMP, SMART HACCP 인증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식 및 급식업계에서는 고온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방지하

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키친테크 역량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는 패티 조리 자동화 로봇인 '알파그릴'을 도입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5분이 걸렸던 쿠키킹 시간이 알파그릴로 인해 3분 10초로 단축되면서 작업 시간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BHC도 2023년부터 일부 매장에 튀김 로봇인 '튀봇'을 도입했다. 튀봇은 반죽이 된 재료를 자동으로 트레이를 움직여 조리하는 로봇이다. 사전에 입력된 레시피를 기반으로 로봇이 튀김을 튀겨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한다.

급식 기업 삼성웰스토리는 조리뿐 아니라 전처리, 배식, 세척의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장비 18종을 구축해 급식산업의 첨단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산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또 방대한 빅데이터를 연동하면 수요까지 예측 가능해 기업은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삼양식품

16개월만에 수출 감소세

1월 491.2억달러... 설 연휴 영향 안덕근 장관 "수출 모멘텀은 여전"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크게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한 만큼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수출은 49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이는 올해 설 연휴(1월25~30일)가 1월에 포함됨에 따라 조업일수가 20일로 전년 동월(24일)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조업일수가 20일을 기록한 건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4억6000만달러로, 2022년(25.2억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01억달러(+8.1%)로 역대 1월 중 2022년(108억달러)에 이은 2위 실적을 기록,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수출 100억달러 이상의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도 14.8% 증가한 8억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품목별 일평균 수출 역시 자동차·부

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을 제외한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자동차(50억달러, -19.6%), 차 부품(16억달러, -17.2%) 수출은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가 1월 31일도 추가적인 휴무를 시행하며 타 품목대비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1월 중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제품가격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가운데, 작년 12월 말 주요 업체의 생산시설 화재로 수출물량 생산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며 크게 감소(-29.8%)했다.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14% 크게 감소한 반면, 반도체 등 원·부자재가 포함된 에너지의 수입은 설 연휴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며 3.9% 감소에 그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에는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작년 1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며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과 시장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우리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내일이 두근대는
경기미래 교육

지역 자원 온라인 학습 학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온라인 학습이 더해져
마침내 완성되는 경기미래교육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데이터·AI·결제 혁신’... 신사업 드라이브 속도전



⑩ 박창훈 사장

신한카드는 올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은 박창훈 본부장을 신한카드 사장으로 발탁했다. 부사장 직급을 거치지 않은 만큼 파격 승진이란 평가가 나왔다. 신한카드는 박창훈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만큼 ‘결제 기능 제고’ 등을 토대로 ‘회원 영업’과 ‘신사업’ 등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위기 신호가 체감되는 요즘 같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변화와 혁신의 의지로 카드업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해 갈 때, 빛나는 미래는 우리에게 모습을 내비쳐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변화와 혁신’ 결제 편의성 높인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애플페이에 신한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표의 영업 기조와 애플페이 진입이 일치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대표는 올해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본격적인 영업 확장 행보를 시사한 가운데 애플페이가 신한카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단 관측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규 회원을 유인할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난해 하반기 회원 모집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쟁사와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신한카드의 신규 회원은 11만명이다. 8월 신규 회원 수는 10만4000명으로 6000명 감소했다. 이후 11월(9만8000명)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신규 회원 모집 능력만 보면 업계 중 위권이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인구 감소와 시장 성장률 정체, 우리의 과거 성공 방정식을 참고해 경쟁사의 전략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조했다. 애플페이 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요인 또한 감내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애플페이에 진입한 현대카드는 애플에 결제수수료 0.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카드사가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0.40%)의 37.5%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한카드의 가맹점수수료 누적수익은 5807억원이다. 매 분기 19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들었다. 단순 셈법으로만 놓고 보



이달 중 애플페이 등록 가능성 ↑
결제 편의성 확대, 회원 유입 기대
수수료 부담 속 경쟁력 강화 전략

‘데이터바다’로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AI 상담 도입, 서비스·운영 효율 증대
글로벌 데이터 공략, 시장 영향력 확대

‘AI 5025’로 상담·결제 시스템 고도화
‘솔트래블’ 성장 지속, 여행 서비스 강화
인프라 활용해 질적 성장·시장 확대

면 올해 분기별 700억원 안팎의 수수료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박 사장은 “변화는 향후를 위한 생존 비용(Cost)이란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라며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지불 방식 경쟁력을 갖춰 시장 지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플랫폼 성장으로 신성장 동력 구축

신한카드는 올해 플랫폼 분야 육성에

적잖은 공을 들일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데다 신규 회원이 늘어날수록 신사업 확장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회원은 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카드사가 결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공·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업계에서도 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바다’를 공개했다. 신한카드가 가진 빅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해 상권분석과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월평균 데이터 3억5000건을 수집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회원 수는 1437만9000명이다. 카드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양적(Quantity) 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신규 회원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양적 혁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질적(Quality)인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조직 내에서 ‘영업통’으로 분류된다. LG카드를 시작으로 신한카드에서 영업추진팀장과 ▲신성장본부장 ▲페이사업본부 ▲페이먼트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그중 페이먼트그룹의 경우 결제 분야 확장을 위해 남다른 영업 능력이 필요한 부서다. 신규 회원 확보는 물론 신성장 동력 설립을 위한 영업 일선에서 활발한 지휘가 예고된다.

박 사장은 “양적 혁신이 없는 회사가 질적 혁명을 이룬 사례는 세계 기업 그 어디에도 없다”라며 “질적 혁명은 양적 혁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 기존사업과 신사업, 연결점은?

올해 신한카드는 기존에 구축했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박 사장이 임기 초기 자신만의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꾸리는 ‘연결고리’를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발판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함께 견인해야 하는 만큼 여계가 무겁다.

‘AI(인공지능) 5025’ 프로젝트는 박 사장 체제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인공지능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상담 업무 비중은 23%에 그쳤지만 2023년말 31%까지 끌어 올렸다. 결제내역 안내는 물론 분실신고 및 해제, 카드 발급심사 등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영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출시한 ‘솔트래블’의 지속 성장도 기대된다. 카드업계가 여행 업종에서 진검승부를 이어가면서다. 업계에서는 여행 관련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본다. 트래블카드의 역할이 상표 가치 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캐나다 및 싱가포르관 광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국가에 방문한 신한카드 가입자에게 할인·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과는 경제재정부·법무부·중앙은행 등과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세계 데이터 시장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라며 “그동안 신한카드가 적합한 데이터 사업을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협약식에 참석한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오른쪽)과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與野, 중도층 민심 공략... AI 대응책·연금개혁 논의 '주목'

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

조기대선 겨냥 민생·경제 입법 집중 오는 10일·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中 딥시크 發 충격 대응 도모 '관심' 연금개혁 논의 재개 목소리도 나와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거치며 중도층 민심 얻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어난 보수층의 결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호각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해 중도층에 구애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부터 개최하는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권성동 국민



우원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또한 1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여야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이 2월에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머리를 맞댈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 처리 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시크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 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위해 ▲기초연구·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추진 ▲국가AI위원회의 정상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지원 ▲인공지능 생태계 위한 외교적 노력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를 주장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이뤄지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2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6%(지난해 기준 42%)로 높이자고 해 입장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장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한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찬반 토론 연다

李, 좌장 맡아 정책 디베이트 주재 지난해 삼성전자 요구에 기류변화 노동계 반발... 규탄 기자회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제션)'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반도체 업계는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주 52시간 제외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디베

이트를 주재하며 당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한다.

토론에선 주52시간 제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4인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4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재정으로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으나, 이제는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제외 조항 삽입을 주장하면서 최대 쟁점이 됐다. 반도체 업계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스펙을 구현해내는 반도체 설계·개발 업무의 특성상, 주52시간 노동제 아래에선 업무

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난색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5일 삼성전자가 민주당을 방문한 이후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정치권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반도체 산업 세계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정치 상황 혼란에 지연되는 것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안에 이어 '주52시간 제외' 이슈를 정책 디베이트 안건으로 올렸다. 실

용주의를 천명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지는 것"이라며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3일 국회 앞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을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총도 "반도체 디베이트는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라면서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다. 연구개발업무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예외제도(특별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제 예외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尹·與, 9인 체제 대비 '헌법재판관 편향성' 공세

오늘 '9인 체제' 완성 관련 선고 與, 완성 시尹 탄핵안 인용 판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

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현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한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금융지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4대지주 작년 당기순이익 16.6조 예상 사상최대 실적 대비 1조 이상 늘어 KB금융 순이익 사상 첫 5조클럽 전망 신한 4.6조, 하나 3.7조, 우리 3조 호실적에도 상생금융 압박에 부담

KB 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주요 금융지주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이익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실적이 예상되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5일 KB금융지주, 6일 신한금융지주, 7일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2024년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권이 집계한 4대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총

16조6213억으로 전년(14조9279억)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 2022년(15조5309억) 대비 1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2024년 예상 순이익은 5조896억으로 전년(4조6319억) 대비 9.9% 증가해 사상 첫 '5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은 4조6837억으로 전년(4조3680억)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과 순이익 격차는 약 3800억으로 KB금융이 '리딩금융'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7962억원,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1.7% 상승한 3조518억원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2년 만에 '3조 클럽' 복귀 가능성이 예상된다.

4대 금융지주 순이익 전망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지난해 은행을 중심으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쭉거리자 가계대출 수요가 많아졌다.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

출금리를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자 수익이 커졌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지만 금융지주의 분위기는 어둡다.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은행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주요 시중 은행장을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상생' 역할을 당부했다.

현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유력 후보가 은행장을 만나 사실상 더 많은 '상생 금융'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을 위해 2조154억원을 집행했고, 지난해 말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간 7000억원, 총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시즌2'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또 다시 상생금융을 압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이자수익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실적을 위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은행권은 고객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3기 신도시' 서울 인접 고양창릉 본청약

31일부터 3개 블록 1792호 공급
은평·마포 가깝지만 분양가 부담

올해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고양창릉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당초 고양창릉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입지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었지만 사전청약당시보다 1억원까지 오른 분양가가 부담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는 2030년까지는 불편한 교통도 감안해야 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S5·S6), 총 1792호의 본청약을 진행한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일단 입지가 좋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 가능하다. GTX-A 노선 창릉역이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특히 이번엔 공급하는 A4, S5, S6블록은 고양창릉 지구 내에서도 입주 수요가 몰렸던 곳이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은 각각 평균 6대 1, 43대 1, 26대 1에 달했다. S5블록 84형의 경우 경쟁률이 최대 16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양창릉 A4블록 조감도.

/LH

분양가는 사전청약당시보다 크게 뛰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사전 청약자들이 몇 년 만에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가를 감당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사전청약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본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A4블록은 신촌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603호가 공급된다. 일반 청약물량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186세대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이며, 분양가는 평균 5억5000만원 안팎이다. 사전청약 분양가 4억7000만원 대비 17%나 올랐다.

S5블록은 총 759세대며, 전용면적 ▲51㎡ ▲59㎡ ▲74㎡ ▲84㎡ 등으로 구성됐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 청약 물량은 126세대다.

사전청약당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로 평균 분양 가격은 ▲51형 4억8000만원 ▲59형 5억5000만원 ▲74형 6억8000만원 ▲84형 7억7000만원 등이다.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하면 84형 기준으로 1억원이 올랐다.

S6블록은 총 430세대, 전용면적 59㎡, 74㎡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79세대며, 평균 분양 가격은 ▲59㎡형 5억7000만원 ▲74㎡형 7억1000만원이다. 74㎡형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2000만원이었다. 입주는 A4블록은 오는 2027년 12월, S5블록과 S6블록은 2028년 1월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 마련된다. 전 시관은 지구 위치도, 단지 모형도 등을 비롯하여 3개 타입(55A·59A·84A)의 건본주택을 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해외건설협, 기획조정실 신설 등 조직개편

전문성·직무이력 기반 인재 배치
해외건설멘토링센터 정책본부 편입

해외건설협회는 기획조정실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고 보직인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회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독립부서인 해외건설멘토링센터는 정책본부에 편입키로 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전문성과 직무이력을 기반으로 한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다. 경영지원본부장에 김태엽 상무이사, 글로벌사업본부장에 김운중 상무

이사, 정책본부장에 정창구 상무보를 임명하고, 새로 신설하는 회장 직속의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용광 상무보를 보직 발령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를 통해 융복합 K-시티(City) 플랫폼 등 핵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외건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첫째주 래미안원페를라 등 2295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방배동 등 전국 4곳서 청약
건본주택 개관 단지는 없어

2월 첫째주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를 비롯해 전국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에 총 2295가구(일반분양 925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건본주택 개관 단지가 없어 2월 초까지는 한산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서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래미안원페를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동,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4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역세권 단지다. 서리폴터널, 서초대로 등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GBD)까지 접근이 용이하다. 방배초, 서문여중·고교가 도보 통학권이다. 해당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한양건설은 광주 광산구 하산동 일원



래미안원페를라 투시도.

/삼성물산

에서 '한양립스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총 47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84~89㎡, 1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나들목(IC), 13번국도(동곡로) 등을 통해 나주, 함평, 무안 등 인접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평동일반산업단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에너지밸리 등이 차로 10분 정도 소요돼 직주 근접이 가능한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국민銀, 적금 비대면 가입고객 경품 증정

모여봐요 KB스타뱅킹으로 이벤트
아이패드 에어11·커피쿠폰 등 지급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적금 가입고객을 위한 '모여봐요 2025년 목돈, 모여봐요 KB스타뱅킹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새해 들어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KB스타뱅킹에서 적금 상품(청약상품제외)을 10만원 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매월 5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중 이벤

트에 응모한 고객이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아이패드 에어11'을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다음달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많은 고객님들이 안전한 적금 상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다채로운 경품 혜택과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삼성전자, HBM 공급·개발 주력... '반도체 왕좌' 되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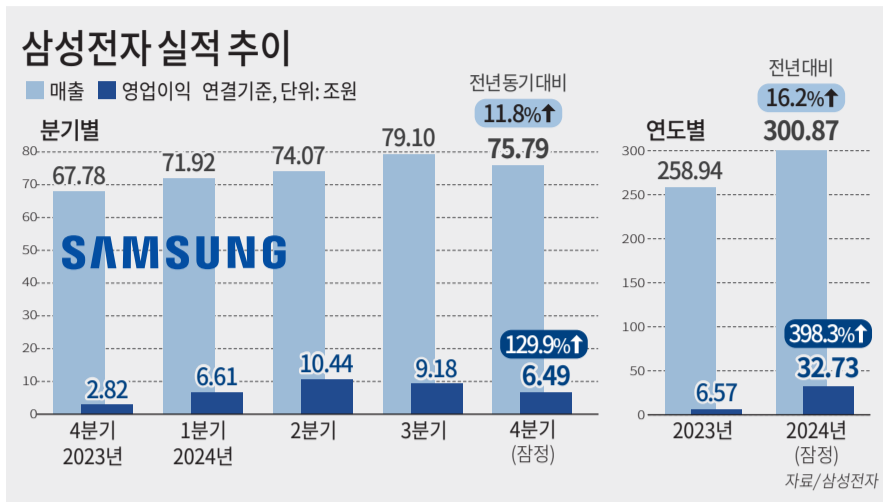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DS부문 실적 저조 HBM4 개발 등 정면돌파 예고 일각선 '딥시크' 호재 작용 분석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강자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왕좌를 내줬다. 인공지능(AI)시장 성장과 함께 급팽창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승패를 갈랐다. 삼성전자의 위기 돌파 방안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HBM 제품 비중 확대와 '딥시크'의 출현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8조 차이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0조1000억원으로 이중 메모리매출은 23조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이었다.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828억원.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매출은 66조, 영업이익은 23조3917억원



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보다 8조원 이상 앞섰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은 HBM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고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이뤘다. 4분기 매출 중 40%가 HBM에서 나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도 이미 완판하는 등 작년의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HBM 실적 기여도가 낮은 삼성전자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에서도 수요 침체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삼성, HBM 공급 두배로... 'HBM4 적기 개발'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HBM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HBM4 적기 개발 ▲중국 등 경쟁사 견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31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 공급 승인을 얻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시적 수요 공백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에 HBM 매출 비중이 외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만약 HBM 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면 수요 공백이 발생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레거시(구형) DRAM은 탄력적으로 생산하고, 고부가 가치인 HBM 생산에 집중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가 올 2분기 이후 HBM 3E 8단에서 12단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며 "고객 수요에 맞춰 HBM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6단 제품 경우 샘플을 제작해 주요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HBM3E를 재설계 하는 동시에 HBM4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시급

이 밖에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이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고비용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는 반면, 딥시크는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000여 개로 단 2개월 만에 개발했기 때문. 결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꼭 필

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AI 업계에 심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업계의 생태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AI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콘퍼런스콜에서 딥시크에 대해 "시장내 장기적 기회 요인과 단기적 위험 요인이 공존할 것"이라며 "GPU에 필요한 HBM를 여러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해지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무 제한을 풀어야 중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근무시간 규제로 인해 납부 지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반도체특별법에 근로 시간 특례를 도입하면 가장 빠르게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적 보상과 건강 보호 조치 또한 구축된다면 중장기적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ul.co.kr

덩치 키우고 편의성 개선... 패밀리카 최적화



2세대 팰리세이드

디자인 등 고급화... 사전계약 돌풍 고속주행시에도 안정적 성능 발휘

"아빠 이차 디자인 너무 예뻐요."

지난달 21일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1층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2세대 팰리세이드에 집중됐다. 특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넓은 공간을 갖춘 팰리세이드를 타고 싶다는 조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팰리세이드는 2018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87만대를 넘기며 현대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자리잡았다. 넓은 실내 공간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한국의 대표 패밀리 SUV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만큼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팰리세이드를 만난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미 사전계약 물량만 4만5000대를 넘어서며 인기를 검증하고 있다.

이날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시승을 진행하며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일단 첫 인상은 한층 커진 차체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해 더욱 강인해졌다. 전장과 전고, 전폭 모두 1세대 모델보다 커졌다. 전장은 65mm 길어진 5060mm, 전고는 15mm 높아진 1805mm, 전폭은 5mm 늘어난 1980mm다. 3열과 트렁크의 공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3열에 성인 남성(키 177cm)이 탑승해도 답답하거나 불편함



현대차 2세대 팰리세이드 외관



현대차 2세대 팰리세이드 실내. /양성운 기자

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성인 남성 3명이 탑승하긴 무리가 있었다. 트렁크 용량은 317L이며, 3열 시트를 접으면 729L까지 늘어난다.

주행성능은 1세대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차체가 크고 전륜 구동 모델에서 발생하는 롤링 현상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엔진과 구동계, 차체 바닥 부품을 낮게 배치해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춘 덕분이다.

고속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갔고 가속 성능도 부족함이 없었다.

시승차량은 2.5L 가솔린 터보 모델로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0kgf·

m를 제공한다. 큰 차체를 움직이기에 힘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고속 주행에도 무게 중심이 낮은 세단처럼 바닥을 단단하게 잡고 달리는 점은 인상적이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흔들림은 크지 않았다.

실내 곳곳에는 패밀리카가 갖춰야 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적용했다. 1열 중앙에 위치한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방향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디지털 센터 룸미러는 화질이 선명해 운전의 부담을 줄여줬다. 2열 시트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2열 다이내믹 바디커어 시트는 진동 소음이 커서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세대 팰리세이드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첨단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으로 패밀리카로 안정맞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팰리세이드 2.5터보 가솔린 모델 가격은 9인승 4383만원, 7인승 4447만원부터며, 2.5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9인승 4982만원, 7인승 5068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스탠바이미' 후속작 공개

5일 라이브방송... 21일 정식 출시

LG전자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LG 스탠바이미 2'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는 이동식 라이프 스타일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이다. 이번 신제품은 화면부를 스탠드와 분리할 수 있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후속작에 바라는 고객의 의견을 제품 기획 단계부터 반영, 장점을 강화하고 원하는 바는 보완해 이번 제품을 설계했다.

무빙휠을 활용한 뛰어난 이동성과 다양한 자세로 시청 가능한 편리한 사



스탠바이미 2 /LG전자

용성이 LG 스탠바이미의 차별적인 장점으로 꼽혔는데 신제품에서 더 편리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달 5일 라이브방송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스탠바이미 2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21일 정식 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인테리어핏 키트' 출시

시스템에어컨 간편 설치 가능

삼성전자가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도 시스템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는 천장 내·외벽 사이가 좁은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진행하던 천장 단내림 공사를 대체하는 패넌이다.

천장 단내림 공사는 천장 내벽 절단과 목공·도배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해 2~3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층고가 낮아 지거나 공사 부위가 돌출되는 단점이 있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활용하면 천장과 시스템에어컨의 단차를 들뜸없이 연결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의 무풍 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시스템에어컨과 하나의 제품처럼 조화롭게 이어진다.

설치 방법이 간편해 하루 만에 시공이 가능하다. 천장 외벽을 타공해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설치하고 설치된 키트에 시스템에어컨을 거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18만~19만원이다. /구남영 기자

美·유럽 ‘보안 리스크’ 차단 vs 인도 ‘AI 도약 기회’ 환영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논란

美 의회·국방부, 접속 전면 차단
유럽, GDPR 위반 가능성 조사 착수

인도, 저비용 AI로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 등 적용 확대, AI 패권 경쟁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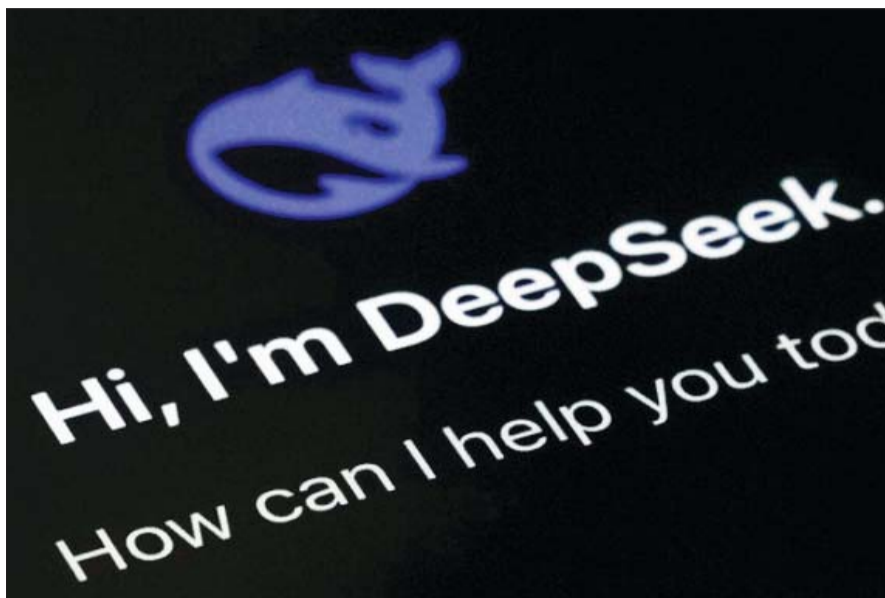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존 선진국 위주로 형성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독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딥시크의 적극적인 수용을 권장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딥시크가 개발한 AI 추론 모델 ‘딥시크 R1’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딥시크 R1은 6710억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한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 큰 파장이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H800 칩을 활용해 챗GPT-4에 근접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과 의회는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전화나 컴퓨터 등의 회 내 공용 장치에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직원들에게도 딥시크를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의회는 “위험 인자들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고 있다. /AP·뉴스시

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해군과 국방부도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특히 국방부는 일부 직원들이 딥시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차원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스코프에 따르면, 자사 고객사 중 52%가 이미 딥시크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아르미스의 나디르 이즈라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사의 고객사 약 70%가 딥시크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며 “수백개의 기업, 특히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 약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 수집·저장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중국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딥시크의 AI 모델 R1과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후 이탈리아 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이 삭제됐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도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 관련 데이터 처리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에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역시 딥시크의 AI 시스템 작동 방식과 데이터 보호 위험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인도는 딥시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이 강경한 규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인도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슈위니 바이슈노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딥시크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 내 서버에 딥시크 모델을 호스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도는 딥시크의 저가형 AI에 자국을 받아 연내 6개의 자체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농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에서 개발된 파운데이션 AI 모델들이 세계 최상위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AI 보안 전문가는 “딥시크 R1이 저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점은 기술적 도약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국내에서도 딥시크 관련 보안 위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물론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오픈소스’ 딥시크 챗GPT와 차이는?

딥시크(DeepSeek)와 챗GPT(ChatGPT)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두 인공지능(AI) 기술은 오픈소스나, 폐쇄형이냐라는 차이가 있다. 챗GPT가 자사의 소스코드를 완전히 폐쇄해 자사 개발자들 외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달리, 딥시크는 소스코드를 전면 공개하고 있는 것.

2일 AI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등장 이후 오픈소스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딥시크, 오픈소스로 투명성 강조 챗GPT, 폐쇄형 독자적 개발 유지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투명성’을 꼽는다. AI 모델 성능의 핵심인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모델의 동작 과정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검증은 윤리적 편향성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 AI를 개발하는 개발진이 가질 수 있는 편향성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오픈소스는 무료로 배포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소스를 수정·확장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갤S25 출시 맞아 멤버십 혜택 2배”

배달·카페·문화 혜택 확대 25만명에 무료 쿠폰 지급

SK텔레콤이 2월에도 각종 멤버십 혜택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 S25 공식 출시를 맞아 기존 혜택을 두 배로 제공하는 더블찬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3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 멤버십 회원은 배달의민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처갓집 7000원 할인 쿠폰을 기존 1회가 아닌 2회 사용할 수 있다. 파riba 게뜨 1000원 구매시 200원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기간 내 2번 사용할 수 있다. SKT는 상시 제휴 외에도 T day, 0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은 T day와 0 day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쿠폰,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T day 럭키찬스 응모 기회도 2회로 늘어난다. 2월 럭키찬스는 갤럭시 S25 관련 퀴즈 정답을 맞춘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 세트를 제공한다. 추첨은 2월 중 두 차례 진행되어 총 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갤럭시 S25 공식 출시일인 2월 7일에는 25만명에게 푸레쥬르 리얼브라우니 무료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며, 쿠폰 사용 기간은 7일부터 26일까지다.

또한 매월 첫 주 수요일 운영되는 T day 오픈런 쿠폰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길어진다.

만 13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SK텔레콤 청년 ‘영(0, Young)’ 고객은 10일, 20일에 운영되는 0day 혜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달 0day 무료 혜택은 총 16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이소 5000원권, 컴포즈 커피 아메리카노 무료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하루 3만명씩 2회, 총 12만명에게 제공한다. 달콤커피와 갓잇 타코 1개 무료 쿠폰을 하루 2만명씩 2회, 총 4만명에게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카카오엔터 장윤중,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년 연속 글로벌 영향력 입증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장윤중 공동대표가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2025 빌보드 파워 100 리스트’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다

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빌보드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리스트에서 장 대표를 멀티섹터 부문 15위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리스트는 음악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레이블, 퍼블리싱, 멀티섹터 등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 이름을 올린 한국인은 장 대표를 포함해 두 명이다.

빌보드는 장 대표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주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K팝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와의 북미 통합 법인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 점을 주목했다.

/이혜민 기자

LGU+, ‘유플투빨’ 누적 고객 800만명 돌파

20·40세대 여성 고객 가장 많이 참여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멤버십 혜택인 ‘유플투빨’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누적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플투빨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4월 선보인 유플투빨은 매일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새로운 컨셉의 멤버십 혜택이다. 고객들은 통합 혜택 플랫폼 ‘U+멤버십’ 앱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9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플투빨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22곳의 제휴사가 참여해 월평균 45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은 매달 평균 5개 할인쿠폰을 내려받았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 할인 쿠폰은 금액으로 868억원에 이른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참여가 가장 많았던 혜택은 ▲CGV(콜라+음료 무료 증정) ▲베스킨라빈스(퀵터 사이즈 1만2천원 할인) ▲다이소(3천원권 쿠폰 증정) 순이었다.

누적 할인 금액이 많은 제휴사는 아웃백, 빙스, 피자헛 순이었다. 참여 고객은 20대와 40대 여성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은 30, 40대가 참여율이 높았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유플투빨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번 달 유플투빨을 통해 ▲고반식당(2인분 이상 구매 시 삼겹살 1인분 무료) ▲CGV(팝콘+콜라 무료 증정) ▲할리스(커피 음료 1잔 무료) ▲파스쿠찌(조각케이스 최대 3000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스와로브스키 도산파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도슨트 투어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유플투빨은 고객의 생활 속 필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멤버십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증권株, 트럼프 관세 리스크 영향 미미... 안전투자처로 '주목'

KRX증권지수, 지난달 6.18% ↑
대형사 중심 수익성 개선 가능성
금투세 폐지 등 우호적 환경 조성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적은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증권업의 밸류업 모델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지난달 6.18% 상승하며 같은 기간 4.91% 오른 코스피 지수를 웃돌았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11.50%)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키움증권(7.75%), 미래에셋증권(4.98%), 삼성증권(4.83%), NH투자증권(3.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주에 환호하는 투자자 이미지.

자들의 매수세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도 지난달 키움증권을 300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151억 원, 27억 원어치 사들였다. 기관투자자들 역시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422억 원), NH투자증권(268억 원) 등을 적극 매입했다.

증권주로 매수세가 유입된 배경에는 증권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슈에서 증권업은 제조업 대비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내

수 기반 산업이자 수수료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사업 역시 국내 투자은행(IB)에 집중돼 있어, 보편관세가 시행되더라도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스피 상장사들이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되는 것과 달리, 증권업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유례없는 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3년 4분기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당금 및 해외 부동산 감액손실 반영도 크게 완화되면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거뒀을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국내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16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2% 감소했

나,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58조 원으로 34.9% 증가하며 매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존속 의지를 밝힌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거래대금 확대가 기대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밸류업 2차 공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삼성증권 역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동 연구원은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연간으로도 증권업의 밸류업 모델이 존재한다"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이의 체력이 돋보이는 한국금융지주와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매력을 갖춘 삼성증권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트럼프·딥시크發 변동성에 안전자산 강세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 13만520원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8.65% 올라
中 딥시크 쇼크에 금 ETF 상승세
머니마켓액티브 ETF 매수도 박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딥시크 쇼크'로 인한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변동성 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이 다.

2일 한국거래소 국제금시세 동향에 따르면 가장 최근거래일(지난달 31일)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은 종가는 13만 520원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 등의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7일(g당 12만 130원) 이후보다 8.65% 상승한 가격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도 장중 한때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798.59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에 세운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러한 금값 상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트리거가 됐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발생한 '딥시크 쇼크'로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한 가운데, AI 인프라 기업 주가 하락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는 자금 유입세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지난달 31일 전 거래일 대비 430원(2.32%) 오른 1만 8975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약 11.49% 상승한 가격이다.

투자자들은 금 외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 머니마켓액티브 ETF 매수에 적극 나섰다. 파킹형 ETF로 분류되는 이 상품은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며, 편입

과 편출이 용이해 단기 자산 운용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한 대피처로 활용되며, 손실 위험이 작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ETF 상품 전체 중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인 ETF는 KB자산운용의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로 2210억원이 순유입 됐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 EX 머니마켓액티브' ETF에도 232억 원이 순유입 됐다. 설 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31일 하루 만에 해당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미 10년 금리가 4.8% 수준까지 상승함에도 금값은 큰 조정 없이 견조한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신흥국의 통화 가치 방어 등은 올해에도 유지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 금가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금값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권금융,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실시

우수 인재, 핵심 부서장·팀장 보임
디지털 본부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

한국증권금융이 디지털 및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인사와 조직개편을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증권금융은 부서장의 75% 이상, 팀장의 56% 이상을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성과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 역량 중심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핵심 부서장 및 팀장으로 보임해 조직혁신의 추진력을 확보

하고 성과 중심 문화 정착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신규임용된 부서장은 총 7명이며, 팀장은 12명이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이 활용될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본부를 신설하면서 기존 6개 본부에서 7개 본부로 확대됐다. 더불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본부 편제도 추진됐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능별 조직 강화를 위해 디지털전략부, 외화금융부, 투자전략실 등을 신설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형사처벌 대상"

금감원 Q&A
자본시장법 제174조 근거로 들어
공개매수 정보이용 고발 사례 있어

"내 월급 빼고 다 올라!"라는 불만, 다들 한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부동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재테크 대안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아무 정보나 막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최근에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에 대한 자문회사 소속 직원 등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공개매수 대상 주식을 매수해두었다가 공개매수 실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한 것이지요. 이러한 주식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근거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매수'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한 뒤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허정윤 기자

어닝서프라이즈에 주주환원까지... 목표주가 줄상향

metro 관심종목
현대모비스

3분기 이어 2개 분기 연속 호실적
총주주환원을 30% 수준 이행 기대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하반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주목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지난달에 11.41% 급등했다. 1월 24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4.56%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26만 원대 진입했다.

지난달 23일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한 14조 7107억 원, 영업이익은 88.5% 증가한 98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후 서비스(AS)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S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한 3조 1300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 상승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리포트를 낸 16개 증권사 중 9개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는 TSR 30% 이상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이행안으로 2025년에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3사 합병’ SK온, 재무구조 개선... 배터리·트레이딩사 도약

매출 62조, 자산 40조로 증가 전망
연간 5000억 EBITDA 추가 기대
원소재 구매비용 절감 등 시너지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새롭게 자리한다. 이번 합병으로 원소재 조달 역량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지속 성장 기반도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 1일 SK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지난 2024년 7월 발표한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터 3사간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3사 합병 법인명은 SK온이다.

앞서 SK온은 지난 2024년 11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합병을 진행했다. 이후 기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고 SK온 내 사내독립기업



SK온 서산공장 전경. /SK온

(CIC)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SK온은 연간 5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SK엔터는 ‘SK온 트레이딩 인터내

셔널’의 터미널 사업부를 맡아 국내 최대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을 담당한다. SK그룹의 울산 사업장(울산 CLX)에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시설 등을 보유 중이다.

이번 합병의 핵심 효과는 재무 안정성 강화다. SK온은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가에서는 SK온이 4분기 3000억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객사 보상금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긴 했으나 출범 첫분기 흑자를 냈던 지난 3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SK온은 이번 합병으로 매출과 자산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전인 지난 2023년 말 기준 각각 13조원, 33조원이던 SK온의 매출과 자산은 합병 후 각각 62조원, 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추가도 기대된다. 합병된 회사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낮고 제한적 설비 투자(CAPEX)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

석이다. SK온은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노하우를 활용한 합병 시너지도 꾀한다. 원소재 구매 비용 절감은 물론, 가격 변동성과 거래 리스크 등 시장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석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소재 트레이딩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K온 관계자는 “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합병 후 CIC 형태의 독립적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이겨내기 위해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예방·피해구제 나서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기업별 3000만원~7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했다.

우선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의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

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한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 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급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수수료(1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

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0카피, 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피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올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기업·구직자 모집

중기부,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애로센터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 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를 1대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대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

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해 청년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1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 사업단에서 청년구직자 950명을 교육시켜 600명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는 일자리매칭플랫폼에서 참여사업단과 사업단별 모집규모와 직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중견기업 사업단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단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中企 협동조합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지원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 지원으로 구분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

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이 있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및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에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1명, 최대 한도 월200만원 지원)이 해당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다.

또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벽걸이·스탠드 겸용 공청기 출시

코웨이가 벽걸이와 스탠드 겸용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2025년형 벽걸이 공기청정기2(AP-1225F)’ (사진)를 출시했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벽면 설치가 가능해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 설치가 쉽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겸용으로 손 닿는 곳에 두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12평형급 제품으로 4단계 필터시스템을 탑재해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발생하는 냄새까지 케어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한다.

4단계 필터시스템은 0.01 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 여기에 에어매칭 필터를 통해 맞춤형 공기 관리까지 지원한다. 에어매칭 필터는 ▲미세먼지집중 필터 ▲새집필터 ▲이중탈취필터 중 선택해 장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벽걸이·스탠드 겸용 공청기 출시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출 개척 코트라,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중소 플랫폼 활용 실태 분석 결과 866만명 '해외경제정보드림' 이용 '트라이빅' 바이어 조회 5185개사 수출 초보기업도 온라인 무역 활용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 지난해 진행했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수출 성공사례 공모전 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의 플랫폼 활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 결과 지난해 기업들은 코트라의 통합 정보 포털 '해외경제정보드림(헤드림)'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라이빅(TriBIG)'을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이뤘다.

특히 헤드림과 트라이빅으로 시장 트렌드와 바이어 정보를 알아내고, 무역관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출에 성공한 '디지털-현장 융합형' 해외진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냉각 설비와 장비를 생산해 판매 중인 A사의 경우 헤드림에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호주를 진출 목표로 선정하고 트라이빅의 바이어 탐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바이어를 찾아냈다.

이후 코트라 멜버른무역관 도움으로 플랫폼이 찾아준 호주 바이어와 직접 접촉했으며, 결국 9만5000달러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같은 바이어와 총 100만달러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

규모의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더 많은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수출경험이 많지 않았던 K-뷰티 전문기업 B사도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력과 코트라 무역관 지원에 힘입어 해외진출에 성공한 케이스다.

B사는 헤드림의 '수출로드맵' 서비스와 '상품DB'를 활용해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한 다음, 헤드림이 추천하는 코트라 창춘무역관 지원사업에 참가해 중국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창춘무역관과 함께 거래선을 개척, 자사 뷰티 제품을 현지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헤드림을 방문해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는 866만명으로 확인됐고, 트라이빅의 바이어 조회 서비스 이용 기업도 5185개사에 이르는 등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폭넓

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처럼 해외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재개한 기업 297개사가 트라이빅의 바이어 추천 서비스를 받았고, 평균 연 수출 1만달러 이하 '수출초보기업' 432개사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훈 코트라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장 동향과 바이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현장 조직인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실제 성약을 이끌어내는 '디지털-현장 융복합 지원'이 공사가 추구하는 최종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등 국립공원서 내륙습지 18곳 추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를 활용해 습지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기존 54곳에서 72곳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발견된 습지 대부분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오염 정화 기능을 수행하며,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난 생태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침엽수림 토양보다 약 1.8배 많은 탄소를 비축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된 습지를 포함해 총 72곳(면적 74만2086㎡)의 습지에 대해 연말까지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고효율 가전 구매 취약계층 환급비율 30% 확대 나선다

산업부, 17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식기세척기 추가 총 11개 품목 지원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올해 예산은 125억원 규모로, 3일 한국전력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1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환급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대가족 등 나중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지원한다.

환급대상 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기가와트시(GWh)의 에너지 절감(4인 가구 1633가구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하도급법' 위반한 KG모빌리티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적발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 ~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판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

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이달 멸종위기 야생동물 '흑두루미'

IUCN, 취약 등급으로 지정

환경부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는 몸길이 약 100cm, 몸무게는 수컷 3~5kg, 암컷 3kg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두루미류 중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과 이마, 머리 꼭대기에 깃털이 없어 붉은색 피부가 드러나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이 특징으로 인해 영어로는 '후드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몸빛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명명됐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지로 이동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순천만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번식지에서는 어류와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류(berry) 열매 등 식물성 먹이를 함께 섭취하지만, 월동지에서는



흑두루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벼를 비롯한 낱알과 식물의 줄기·뿌리를 주로 먹는다.

흑두루미는 사회성이 강한 조류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한 마리가 '쿠루루' 하는 경계음을 내면, 무리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집단적 안전 행동을 보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1만5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IUCN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 신약개발 지원 박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담 심사팀 운영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 동물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신약허가 기술검토를 전담하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 및 허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신약 전담 심사팀은 연간 역대 최고인 7건의 신약 허가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허가 건수(3.5건)의 2배에 달하고, 2019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전담팀 운영 이후 개·고양이 당뇨병, 골관절염 등 반려동물의 만성 질환 치료와 증상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 허가됐다. 산업동물용인 꿀벌 질병 관련 신약 1건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동물약품 업계는 신약 허가를 받고 싶어도 신약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자체적으로 허가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전담 심사 체계를 마련해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과 심사·허가까지 전 과정에서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허가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지난해 동물용 신약 허가 실적은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허가 속도를 개선하고 심사 과정에서 업체와 활발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용 신약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승인, 허가심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서울 소비경기 활력저하 지속 제조·서비스업, 경기악화 체감

서울연 '서울경제동향 1월호' 소비경기지수 -1.1%... 하락폭 ↑ 제조업·서비스업 BSI, 전월비 줄어

서울의 소비 경기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소비 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됐다.

작년 11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는 -1.1%로 전월(-0.5%)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지난해 9월 -0.8%, 10월, -0.1%, 11월 -1.3%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7%, -1.3%, -0.8%로 계속 마이너스였다.

이 기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4%, -2.7%, -0.5%로 조사됐다. 작년 9~11월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6%, -1.8%, 0.1%, 대형마트 판

매액지수는 -7.8%, -5.4%, -2.4%였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서울의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이하 동행지수)는 100.3으로 전월(100.5) 대비 하락했다.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편이란 의미고, 100 미만이면 나쁘다는 뜻이다. 서울의 동행지수는 작년 9월 100.2에서 10월 100.5로 소폭 상승했다가 11월 100.3으로 다시 줄었다.

제조업 생산(-6.1%)은 전월(-7.5%)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24년 3분기, 1.9%)은 전기(3.8%)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작년 11월 수출(2.2%)은 전월(8.3%) 대비 증가폭이 위축됐고, 수입(-7.9%)은 전월(-4.3%)과 비교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내수 침체로 기업의 경기 체감도 좋지 않았다. 올 1월 전국의 제조업과 서

비스업 업황 BSI(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모두 전월보다 떨어졌다.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해 12월 66에서 올해 1월 61로 5포인트 낮아졌다. 동기간 서비스업 업황 BSI 전망은 73에서 65로 8포인트 급락했다.

서울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BSI 전망 역시 밝지 않았다. 소상공인 경기 BSI 전망은 작년 11월 79.1에서 12월 78.1, 올 1월 77.3으로 떨어졌고, 이 기간 전통시장 경기 BSI 전망은 82.2, 71.3, 69.2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인데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속 상승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10~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1.6%, 1.8%로,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뛰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동 기간 서울의 상품물가 상승률은 0.6%, 1.1%, 1.6%로 연달아 0.5%포인트씩 치솟았고,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8%, 1.9%, 1.9%로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올해 서울 중학교에 6만7000여명 입학

지난해보다 1955명 늘어

올해 서울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6만 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태어난 흑룡띠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지난해보다 1955명(2.96%) 많은 6만 7985명의 신입생이 관내 382개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수는 2024학년도 대비 1955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생 흑룡띠 출생아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남학생이 3만3906명, 여학생은 3만 3079명이다. 특수학교와 특성화중학교, 각종학교 입학예정자 905명은 제외했다.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은 총 2573학급에 학급 당 평균 26.4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원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49학급이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 25.2명에서 1.2명 증가했다.

11개 교육지원청별 학급당 학생수는 강남·서초가 30.5명으로 가장 높고, 강동·송파와 강서·양천이 각각 27.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교육지원청이

21.4명으로 가장 낮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인 경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총 2440명의 학생들이 동일 학교로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정 결과를 3일 원서 접수 시기제한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배정통지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출신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 시·도 졸업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배정통지서를 교부 받으면 3일부터 4일까지 배정 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중학교 배정 후 전 가족이 서울시로 전입을 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재배정을 신청해서 다시 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재배정 신청 기간은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이현진 기자

올해 수능 N수생, 최대 20만2762명 전망

2001년 이후 25년 새 '최대 규모' 의대 모집 조정 변수, 규모에 영향 고3 학생 수 증가로 비율은 낮아져

2026학년도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N수생이 20만명대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001년 이후 25년 새 최대 규모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종로학원이 수능 접수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N수생은 19만~20만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도 고3 졸업생 대비 N수생 비율, 연도별 재수생 추세, 고3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최대 20만2762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2025학년도 N수생은 18만1893명으로, 이보다 11.5% 증가한 규모다.

N수생이 20만명대를 돌파하면, 26만9059명이던 지난 2001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 2002학년도부터 20만명을 넘어선 해는 없었다. N수생이 20만명이 넘어간 적은 1994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모두 8번 있었고, 1996학년도가 31만3828명으로 해당 기간 최대 규모 N수생이 수능을 치렀다.

올해 졸업을 앞둔 고3 졸업생은 40만 6079명으로, 이 중 34만777명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이는 전년 동일 기준(32만6646명)보다 1만4131명(4.3%) 증가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 4년제 대학 202곳의 모집인원과 지원자 수를 대비해 보면, 어느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험생은 1만176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중 서울권 대학엔 5542명(3.5%) 증가하고, 경인권 2031명(2.3%), 지방권 4190명(2.8%)이 각각 늘 것이라고 종로학원 측은 예측했다.

특히, 2025학년도 전국 98개의 대·치대·한의대·약대 등 '메디컬분야'에서 정시 탈락 인원이 지난해 보다 3112명

(1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의대에 작년보다 2028명(29.4%) 많은 학생이 정시에서 합격증을 받지 못하고, 전년보다 ▲치대 234명(20.3%) ▲한의대 254명(11.6%) ▲약대 596명(9.6%) 더 정시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 올해 고3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수능 전체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34.8%)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 2026학년도 고교 3학년 학생 수는 45만3812명으로, 지난해(40만6079명)보다 4만7733명(11.8%) 증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현재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6학년도 대입 수능 N수생 규모는 수능 응시자 34.5% 정도로, 19~20만명 초반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적 수치 흐름상으로는 20만명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j@

(2025학년도 서울 관내 중학교 배정 대상자 현황*)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남	여	계		
2025	34,906	33,079	67,985	2,573	26.4
2024	34,084	31,946	66,030	2,622	25.2
증감 (증가율)	증 822 (2.41%)	증 1,133 (3.55%)	증 1,955 (2.96%)	감 49 (-1.87%)	증 1.2 (4.76%)

*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각종학교 입학예정자 905명 제외 /서울시교육청

“카드 포인트, 서울페이플러스로 바꿔요”

이달 말 '동행마일리지' 제도 시행

서울시는 쇼핑, 주유 등을 통해 쌓은 백화점·주유소·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마일리지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4개사가 참여한다. 현재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해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하기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원인 동행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동행마일리지는 올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물루랄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H.Point', S-OIL 'S-OIL 포인트'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영덕 인하대 교수 연구팀, IoT 위한 인공지능 기술 제안

저비용 센서서 신뢰 데이터 측정 인공지능 모델 TESLA 제안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사물 인터넷(IoT)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연구성과를 인정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영덕 교수와 안석호·김형진 박사

과정 학생, 파리-사클레르대학교의 신성복 박사후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 사용되는 저비용 센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 TESLA(Transformer for effective sensor calibration utilizing logarithmic-binned attention)를 제안했다.

이 같은 연구성과는 이달 열리는 인공

지능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 대회인 'AAA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5'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덕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비용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도 고성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일용직 건설 근로자, '안심수당' 받는다

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중지 시 지원"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

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제도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

밸런타인데이·새학기 마케팅... 유통업계, 실적개선 기대감

롯데백 선물상품 할인가에 선봬
아모레퍼시픽 등 4개 뷰티 할인

이마트 14일까지 관련상품 30%
일정금액 초콜릿 구매시 추가할인

신세계백 커버넌트·컨버스 등 브랜드
가방·신발 등 최대 70% 할인 제공

설 대목 특수를 누린 유통업계가 밸런타인데이, 새 학기 등 다음 시즌 마케팅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전통적으로 시즌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설 특수를 누린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이 밸런타인데이 행사와 새 학기 시즌 마케팅을 전개하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장기간 이어진 설 연휴 동안 유통업계는 특수를 누렸다. 설 연휴 기간 주요 3사 백화점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8% 이상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의 일평균 매출은 32.7% 증가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27.3%, 롯데백화점은 25% 증가했다.

대형 마트도 명절 특수의 효과를 봤다. 이마트의 일평균 매출은 27%, 홈플러스는 24%, 롯데마트는 25% 증가했



신세계백화점 2025년 포스트설 새학기 기획전 관련 이미지.

/신세계백화점

다. 업계에서는 긴 설 연휴로 인해 집밥 수요가 증가한 데다, 강추위로 아우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업계의 일평균 매출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설 이후에도 시즌 특수를 지속하기 위해 연초 시즌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겨냥해 다양한 선물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전국 모든 점포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시세이도 4개 뷰티 그룹사와 함께 뷰티, 주얼리, 패션 액세서리 상품군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한, 파티 및 기념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디저트, 조명, 파티 테이블, 데코레이션 상품을 선보이며, 밸런타인데이 팝업스토어와 한정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마트 역시 이달 14일까지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초콜릿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새 학기 시즌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2월 6일까지 새 학기 제품 기획전을 열어 르꼬끄 스포티브, 커버넌트, 컨버스, 내서

널지오그래픽키즈 등 브랜드의 가방, 신발, 의류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연초 시즌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유통업계의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에는 다양한 시즌 행사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설 대목을 시작으로 밸런타인데이, 새 학기 등의 연초 행사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1분기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도 주요 백화점들은 호실적을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은 3.6% 증가한 5936억원, 신세계백화점은 7% 증가한 664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년 연초에는 대목이 연달아 이어지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편의점 CU가 주류 픽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BGF리테일

CU 주류 픽업서비스 이용 지난 3년간 3배 급상승

CU가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주류 픽업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 상승했다.

CU는 자체 앱인 포켓CU를 통해 앱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픽업할 수 있는 주류 픽업 서비스를 2021년부터 5년째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미리 예약해 맥주, 와인, 위스키, 전통주에 이르기까지 총 2500여가지 주류를 원하는 날짜에 픽업할 수 있어 이용 건수가 매해 늘고 있다.

실제로 주류 픽업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2년 6만여 건에서 지난해 20만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포켓CU 주류 픽업 서비스 CU BAR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22년 145.2%, 2023년 190.8%, 2024년 188.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 '요리하다' 팝업 오픈

오는 21일까지 잠실점 보틀병커서
상품 활용 이탈리아 퓨전분식 제공

롯데마트가 이달 21일까지 롯데마트 제티플렉스 잠실점 1층 보틀병커서 매장에서 간편식 자체 브랜드(이하 PB) '요리하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 '요리하다 키친&바'는 간편식 PB '요리하다'와 주류 전문 매장 '보틀병커'가 협업해 선보이는 특별 매장이다.

'요리하다 키친&바'에서는 '요리하다' 상품을 활용한 이탈리아 퓨전 분식 요리를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한다. 대표 메뉴로는 ▲고기순대 루꼴라 샐러드 ▲아라비아파 치즈돈가스 ▲들기름 고기 깻잎전 등 총 7가지 요리가 준비됐다.

메뉴 개발에는 식품 PB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참여했다. 양식 전문 셰프와 협업해 퓨전 요리를 개발했으며, 보틀병커의 와인 전문 상품기획자



롯데마트 팝업스토어 '요리하다 키친&바' 포스터.

/롯데마트

들이 직접 요리를 맛본 후, 각 메뉴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직접 선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보틀병커가 운영하는 '테이스팅탭'을 활용하면 다양한 와인을 글라스 단위로 시음할 수 있다. 테이스팅탭은 보틀병커 매장 내에 마련된 셀프 테이스팅 공간으로, 방문객들이 다양한 와인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안재선 기자

SSG닷컴 '그레이트 워크' 할인행사

1주일간 매일 특정품목 선정 할인

SSG닷컴이 이달 9일까지 1주일간 매일 특정 품목을 선정해 할인하는 '그레이트 워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3일에는 제철 과일을 특가로 선보인다. 설향 딸기, 제주산 골드키위, 서귀포 레드향, 칠레산 생블루베리 등을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이어 4일과 5일에는 양념육과 농산물 할인전을 진행한다. 4일에는 '양념 소불고기(800g)'를 1만 3000원대 행사 가격에, '한돈 찜닭(450g)'과 '오삼불고기(400g)'는 각각 4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한다. 5일에는 고구마 2kg 박스를 5000원대, 국내산 양배추 1통을 2000원대에 선보인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할인전도 진행한다. 허쉬 키세스 아몬드, 킷캣 오리지널, 칼파제르 밀크 초콜릿 등 다양한 초콜릿 상품을 1+1행사와 함께 특가에 제공하며 인기 과자도 7일간 할인한다.

행사 마지막인 8~9일에는 주말 장보기 할인전이 열린다. 특히, 바세린 로션, 크리넥스 티슈, 오타비 칫솔, 깨끗한나라 물티슈 등 가공식품 및 생활 용품을 대상으로 1+1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롯데하이마트, 노트북·IT가전 '빅세일'

롯데하이마트가 새학기를 맞아 2월 한달간 전국 32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노트북·IT가전 아카데미 빅세일(Big Sale)'을 진행한다.

매년 2월은 새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 IT가전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 3년(2022~2024년)간 롯데하이마트의 IT가전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월은 연중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시기로

평소보다 약 30% 높게 나타난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에 판매한 '에이수스' 노트북 중 판매량 1위 상품인 '비보북(16형)' 행사상품을 500대 한정 으로 온라인 최저가 수준인 59만 9000원에 제공한다. 또한 로지텍 '무소음 블루투스 마우스', '엠프리스 오리지널 무접점 게이밍 키보드', '주연테크 '게이밍 모니터' 등 다양한 IT가전 행사상품도 최대 25% 할인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 9일까지 전 점포서 '베이비 페어'

유모차 등 유아용품 최대 40% 할인

신세계백화점이 이달 9일까지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베이비 페어'를 열고, 프리미엄 유모차 등 유아용품과 신생아 의류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 '부가부' 전 상품을 5% 할인가에 제공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드래곤플라이'와 '버터플라이' 스트roller 등이 포함됐다.

육아 편집숍 '바베과파'는 입점 브랜드 제품을 5~40% 할인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레드루트 젓병 세정제 또는 세탁세제 정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카시트 브랜드 '싸이베스'도 전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속싸개와 배냇저고리 등 신생아 의류 제품군도 브랜드별로 10~40% 할인한다. 특히, 유아복 브랜드 '에프와'는 전 제품을 20% 할인하며 1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토이 바스켓을 증정한다. 유아동 의류 브랜드 '슈슈앤크라'는 인기 품목을 20~40% 할인, '오가닉맘' 역시 배냇저고리·손싸개·내의로 구성된 출산 세트를 30% 할인가에 제공한다.

한편, 강남점에서는 이달 7일부터 네덜란드 아기띠 브랜드 '아티포페' 국내 첫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브랜드 대표 상품인 '자이가 이스트 아기띠', '매직 벨트 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세븐일레븐 '프랑스·日 빵 만나요' 글로벌 베이커리 강화

편의점 베이커리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강화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파스키에' 시리즈(6종)를 필두로 일본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 '도쿄브레드' 6종, 일본 카스테라 전문기업 스위스팩토리의 카스테라, 미니 케이크 등 현재 총 25종의 다양한 글로벌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해외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세븐일레븐에서 파스키에빵 구매 후기', '최화정 빵으로 유명한 파스키에빵', '도쿄브레드 6종 후기', '세븐일레븐 일본간식 추천' 등 숏폼,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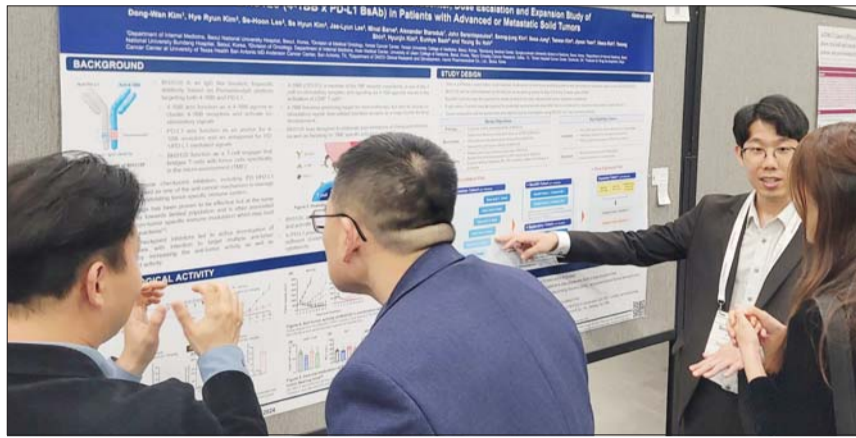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세븐일레븐의 해외 프리미엄 베이커리는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신장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매출도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세븐일레븐의 효과 카테고리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글로벌 공략

이중항체 등 신약 기술개발 박차... K항암제 성공 기대감

HLB FDA에 '간암 신약' 허가 절차
한미약품 BH3120 파이프라인 확장
동아쏘시오그룹
인체 대상 '바스로파립' 임상 완료



지난해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한미약품 ONCO CS그룹 김성중 연구원(왼쪽에서 셋째)이 BH3120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가 담긴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약품

국내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K항암제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는 최근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추가 절차를 완료했다.

HLB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약품 CMC(화학·제조·품질) 실사 후 지적받은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보완한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CMC 실사는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맵' 제조 설비, 공정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서제약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HLB와 항서제약의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HLB 측은 "세 가지 지적 사항은 충분히 빠르게 개선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약 승인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사소한 미비점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을 앞세워 미국 FDA 품목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대표 신약개발 중심 기업인 한미약품도 항암제 분야에서 역량을 쏟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면역항암 혁신

신약 후보물질인 'BH3120' 연구개발에 집중해 성과를 냈다. BH3120에는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가 적용됐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한미약품은 BH3120 단독 요법뿐 아니라, BH3120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 올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에서 BH3120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임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키트루다는 다양한 고형암에서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블록버스터 약물인 만큼, 한미약품은 BH3120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를

활발히 함으로써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도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에 주력하고 있다. 에스티팜이 개발하고 있는 '바스로파립'은 암세포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탄기라제 1과 2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해당 기전으로 인체 대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사례는 에스티팜이 유일한 상황이다. 같은 기전으로 개발되던 경쟁 약물들은 장 독성 문제로 전임상에서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코네티라퓨틱스도 파프-탄기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확보했다. 이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3상 임상의약품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또 체장암을 비롯해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에서 유방암, 위암 등으로 신규 임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nlee236@metroseoul.co.kr

'K보톡스' 사우디 등서 신제품 출시... 영토 확장 드라이브

대웅제약 사우디 '나보타' 정식 출시
휴젤 UAE 보툴렉스 출시 계획
메디톡스 현지 생산기지 설립 추진



지난달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나보타 심포지엄'에서 중동 지역 현지 의료진이 나보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동 지역 보톡스 시장 공략에 나서며 K보톡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중동 지역 최대 보툴리눔 독신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

나보타는 고순도의 고급 보툴리눔 독신으로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받은 하이 퓨어 공법, 감압 건조 공정 등을 통해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독신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고 설명한다. 높은 안정성과

함께 빠르고 정확한 효과를 구현해 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아시아 국가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는 최초

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주보'라는 이름으로 나보타를 판매하고 있다.

이후 이번에 나보타가 진출하게 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보툴리눔 독신 제품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허가 심사를 비롯해 현지 규제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에서 엄격한 품질 심사를 완료해야 시판이 가능하다.

대웅제약은 이번 진출이 세계적 수준의 나보타 품질력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도 중동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휴젤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아

랍에미리트 보건당국(MOHAP)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신 '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휴젤에 따르면, 해당 허가 품목은 보툴렉스 50IU, 100IU, 200IU로 ▲눈꺼풀경련 ▲눈가주름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뇌성마비 침착기형 등 총 5가지의 미용 및 치료용 적응증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

휴젤은 오는 4월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툴렉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휴젤은 앞서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하일루산 필러 '리볼렉스' 품목허가도 승인받은 바 있다. 휴젤은 기존 리볼렉스와 이번 보툴렉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신인 '메디톡

신'을 발매해 온 메디톡스도 신형 수출 국가 중동을 주목해 왔다.

메디톡스는 2024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기업 테콤그룹과 보툴리눔 독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메디톡스가 두바이에 보툴리눔 독신 완제품 생산시설을 세우게 되면, 중동 지역 현지에 보툴리눔 독신 생산 기지를 보유한 첫 국내 기업이 된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 문화가 개방되면서 미용·성형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팝이나 K콘텐츠, K뷰티 등의 소비자 인기가 더해지면서 K보톡스 성장 가능성까지 국내 기업들에게 큰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어스투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미용·성형 시장은 오는 2032년 187억78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엡토즈마' FDA 품목허가 획득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선도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엡토즈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유럽 품목허가도 앞두고 있어 4조원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엡토즈마의 미국 품목허가를 신청해,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 동맥염(GCA), 전신형 소아특발성관절염(sJIA), 다관절형 소아특발성관절염(pJI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주요 적응증을 포함한 허가를 확보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가 피하주사(SC)와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된 만큼, 엡토즈마 역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두 가지 제형으로 모두 승인받았다.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 억제제임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지난 2023년 글로벌 매출 약 26억3000만 스위스프랑(약 4조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허가에 앞서 지난달 엡토즈마의 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하며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퍼스트무버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엡토즈마의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하며, 최종 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과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남은 상업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환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치료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에뛰드, '왓츠 인 마이 아이즈'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메이크업 브랜드 에뛰드에서 새로운 제품군 '왓츠 인 마이 아이즈'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눈 화장 전용 제품인 왓츠 인 마이 아이즈는 총 24가지 색상으로 피부 톤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핑크, 모브, 코랄, 브라운, 그레이, 볼륨 총 6가지 계열을 중심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색상이 선보여진다.

제품 제형도 다양해 음영 메이크업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완성해 준다. 단품 디자인에는 조약돌 모양과 투명한 용기가 적용됐고, 단품을 4개 모아 개인 맞춤형 팔레트로 꾸미는 공용기도 출시



에뛰드 '왓츠 인 마이 아이즈' /아모레퍼시픽

된다. 해당 제품은 이달부터 CJ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청하 기자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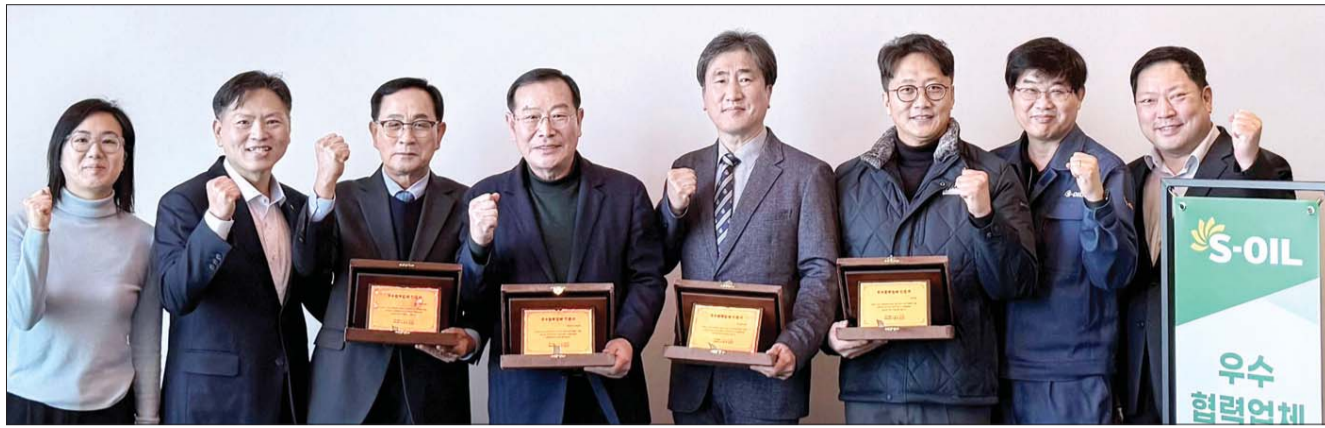
에스오일,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 “동반성장 노력”

매년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 운영 로텍엔지니어링 등 4개사 선정

에스오일이 협력업체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강화하며 상생을 추구한다.

에스오일은 울산에서 각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2024년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열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총 4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우수 협력업체로는 로텍엔지니어링, 경운기술산업, 유백, 장풍 HR 4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기계 정비, 기계 배관공사, 장치 정비, 경비 분야에서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왼쪽 두번째) 에스오일 이동은 구매부장이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스오일

에스오일은 2010년부터 협력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SR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적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에스오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업체 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고 우수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차원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수 협력업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에스오일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앙대, 인니서 한국어 교육 등 봉사활동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이 지난달 13일부터 25 '제12회 인도네시아 사회문화봉사단 CAUNA S'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대 사회봉사단이 주관한 이번 해외 봉사활동에는 중앙대 학생 25명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며 소통했다. /중앙대

중진공-새일센터 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여성 인력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와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훈련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중진공과 새일센터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했다.

양 기관은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의 159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디지털산업(AI) ▲창업 ▲산업안전 ▲경영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선별해 연계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우수관광 상품 공모전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달 3일부터 26일까지 ‘우수 관광 상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여행을 활용한 서울 관광 상품을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개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당일 여행(서울 체류 6시간 이상) 직접 판매 상품’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서울관광재단 누리집 내 ‘알림 마당’을 참고해 응모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숭실대 총동문회 윤훈갑 회장 선출

숭실대학교 총동문회는 윤훈갑 에이엘대표이사(사진)를 제34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윤훈갑 회장은 숭실대 법학과 80학번으로 한양대 전문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으며, 바이엘코리아 부장,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상무, 올텍바이오코리아 사장, 한국MSD동물약품 사장을 역임했다.

윤훈갑 회장은 “총동문회 조직을 정비해 젊은 후배들이 동문회를 이끌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hj@



삼성전자, 유고브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위

브랜드 가치 입증... 2위 유튜브

삼성전자가 유튜브·나이키·넷플릭스 등을 제치고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고브가 최근 발표한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2025’에서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유고브는 2023년과 2024년에는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않

았다. 2015년 삼성전자는 3위에 이름을 처음 올린 이후 3~4위 순위 등락을 반복하다 2022년 처음 1위에 올라섰다.

유고브는 올해 상위 10개 브랜드를 발표하면서 “양질의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기업을 선정했다”며 “다양한 핵심 척도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브랜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고브가 선정하는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는 28개 시장에서 100만건 이상의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응답자들은 수천개의 브랜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인상, 품질, 가치, 고객 만족도, 평판 및 추천도 등 6가지 주요 속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올해 2위는 유튜브가 차지했으며 3위 애플, 4위 구글, 5위 아디다스, 6위 나이키, 7위 콜게이트, 8위 넷플릭스, 9위 토요타, 10위에는 이케아가 이

름을 올렸다. 톱10 브랜드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1위)와 토요타(9위) 2곳 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브랜드 가치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 확대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품 연결성 강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과 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GS리테일, ‘아름다운가게’ 의류·가전 기부

2015년부터 10만여개 상품 전달

GS리테일이 지난달 15일, 비영리 이익재단 ‘아름다운가게’ 경기인천사업국 경기도살림터에 2000여 점의 의류 및 가전제품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GS샵에서 고객 번심 등으로 인해 반품된 후 폐기될 예정이었던 상품으로, 아름다운가게에서 별도 기획전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업사이클링 문구 키트 지원, 어르신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비영리 공



GS리테일 직원이 GS샵 스튜디오 앞에서 기부 홍보물을 들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익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해 매입기준 약 21억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 10만여 개 상품을 기부해 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T, ‘디지털인재 장학생’ 모집

AI 기술혁신 이끌 우수 대학생 지원

KT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끌 우수한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KT디지털인재장학생’을 3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AI와 컴퓨터 공학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공자면서, 학칙에 의한 징계가 없고 누적 학점 평균이 3.5(4.5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ICT 비전공자의 경우 AICE 베이직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

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에게는 최대 4학기의 등록금 전액과 AI 역량 향상 교육 등이 지원된다. 또 장학생들이 실질적인 AI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AI관련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협업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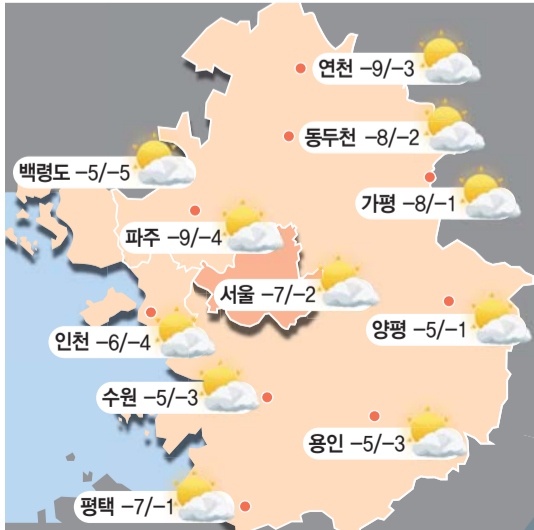
오태성 KT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무는 “KT디지털인재장학생은 ICT 전공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며 “KT디지털인재장학생들이 미래 AI 기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4 | 해질 / 17:58

2월 3일 (월) 음력: 1월 6일

수도권 날씨 -7 ~ -2°C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인사팀장 최은락 △경제정책팀장 김현수 △탄소중립팀장 겸 탄소감축인증센터장 김복영 △AP/EC CEO Summit추진단 총괄운영실장 임충현 △표준협력팀장 교수현
◆서울경제신문 △총무국장장철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현수 △편집국장 이철균 △전략기획실장 겸 백성경제연구원장 서정명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및 2급 승진 △꿈나눔재단 사무국장(파견) 김라현 △외화금융부장 장원준 △강남센터장 김태현(金兌炫) △플랫폼금융부장 염상훈 △영남센터장 김태현(金兌炫) △준법지원부장 민동

원 △영업기획실장 서윤상

부음

- ▲ 김정숙씨 별세, 조국근·조안순씨 부친상, 박학주(전 NH아문디자인산업 대표)씨 장모상 = 1일, 충남 아산 온양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4일, 041-547-4444
▲ 김의훈(전 미국 알라바마 주정부 한국대표)씨 별세, 김재영(숙명여대 명예교수)씨 남편상, 김준하(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김시나(이화여대 디자인학부 겸임교수)씨 부친상 = 1일 오후 9시 5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낮 12시 15분, 02-3410-6901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인터파크 바로가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최근 빌린 빚 많아도 개인회생개시신청 가능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에 빌린 대출이 좀 많은데, 만일 법원에서 제가 빚을 많이 지고 일부러 안 갚고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통해 면책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면책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은 이미 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채무를 일으켜놓고서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탕감 받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시에 회생절차를 밟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초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시금 신규대출을 일으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게 된다. 그 사이 뚜렷한 소득의 증가가 없는 한, 신규대출 또는 차용한 금전의 변제일이 다시 다가오면 그보다 고이율의 추가대출을 이용해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급불능이라는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렇듯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지 최근에 빌린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사유인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같은 입장에서, “전체 개인회생 채무 중 개인회생개시신청일 전 약 1년동안 새로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전체의 8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 채무자의 생활비, 범칙금 납부 등에 사용됐다면 단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결정).

물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에 근접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미 그 당시 변제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채무의 사용처가 단순 사치성 소비나 오락, 여행, 도박 등과 같이 성실한 채무자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법 제595조 제7호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 규정은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한 경우를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사치성 소비, 오락, 도박’ 등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회생절차는 상식에 판사석이 있어 소송 당사자가 재판부를 우러러보게 하는 일반 법정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법관과 채무자, 채무자의 변호사, 관리위원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채무자에게 이 회생절차가 얼마나 필요한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단지 범조문이나 기존 관례의 입장만을 가지고 기각 여부를 선제적으로 단언해선 안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美 주간거래 중단 반년... 그래도 신중히



**허정운
(자본시장부)**

“차트는 움직이는데 왜 거래는 안 되죠?”, “아직 주간거래 재개가 안 돼서요.”

설 연휴 동안 모 증권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국내장이 쉬는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은 한동안 미국 주식에 쏠렸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에 미국증시의 출렁임은 파도 같을 때가 많았다. 특히 AI(인공지능)와 양자컴퓨팅,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였다.

일찍이 서학개미가 된 국내 투자자나, 투자 소식에 밝은 서학개미들은 주간거래가 멈춘 지 반년이나 흘렀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미국 주식 시장 투자에 관심을 둔 ‘초보 서학개미’들에게는 거래는 안 되

는데 움직이는 차트가 신기할 법도 했다. ‘블루오션 사태’는 지난해 8월 5일(한국 시간) 주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거래체결 시스템 셧다운으로 인해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된 거래가 일괄 취소되면서 국내 19개 증권사에서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거래 금액이 취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주간거래 재개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증권사들도 명확한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아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블루오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국내 증권사들이 많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정규거래소 중 처음으로 야간거래(한국 기준 주간거래) 승인을 받은 24익스체인지(X)가 게임체가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

지만 이들은 국내 주간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시세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주간거래를 기대하는 서학개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소식이라면 블루오션이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블루오션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일환으로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고 밝혔고 여의도에 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자사 과실 없음’으로 거부한 블루오션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점점 증가하는 서학개미들의 원활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는 느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3일 (음 1월 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48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60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72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한발도 나서지 마라. **84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 37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즐기고 긴축재정. **49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61년생** 지나온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73년생** 여제까지 과거거나 마음 비우고 힘찬 각오로. **85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 38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5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74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된다. **86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한.
- 3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63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 한눈팔지 마라. **75년생** 성공은 좀 시간이 있어야 한다. **87년생** 고생만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 40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시해라. **52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6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76년생** 식당에 가서 반찬 투정하러거든 직접 해서 먹든가. **88년생** 신선놀음에 도둑처럼 썩는 줄 모르고 지냄.
- 41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3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65년생**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77년생** 보이는 양보다는 질을 따지고 물건을 구입. **89년생** 밖에는 전쟁터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 42년생** 호사다마라 했으니 힘내도록 해라. **5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66년생** 자신을 격려하라. **78년생** 꾸준히 일하다 보니 저축이 되고 세상은 아름답다. **90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 43년생** 운이 흐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5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67년생** 오늘의 불운을 어제의 교만이다. **79년생** 친구들과 노느라 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1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 4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56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편하다. **68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일이다. **8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 **92년생**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니.
- 45년생** 토끼의 뒷에 걸리는 상황이니 매매할 때 특히 조심. **57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실수도 튀어나온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순조롭다.
- 46년생** 죽은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58년생** 운종일 교통안전에 유의. **7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82년생** 진정한 실력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너그러워진다. **94년생** 감개무량(感慨無量)한 하루.
- 47년생** 여러 사람의 충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59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71년생** 하나를 버리고 두 개를 얻는 날. **83년생** 값싼 것이 값지지만 으싼 게 비지떡. **95년생** 아는 것도 없이 남을 무시하다가 큰코다치니.

김상회의 四季

행운은 어디에 ①

행복과 행운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행복은 분수의 기본값이 되는 분모와 같은 느낌이라면 행운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따라 변동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즉 행운은 뭔가 인생 행복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다. 10년도 훨씬 전에 필자는 ‘행운을 부르는 특급 비결’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때때로 심오한 전문적 해석과 통변의 묘가 필수적인 사주 감명에 비하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좋은 기운을 유발하는 생활의 팁을 가볍게 서술한 저서다. 여기에는 공통된 관습적 행동 양식이나 집단 의식을 공유하는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풍수나 동북아 특유의 문화배경이 그 근간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보고 들어온 통념이자 관습적 사고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다. 개운의 시작은 잠을 잘 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충분히 역학적 견지에서 천살방향을 피하라지만, 화장실이나 문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는 것은 생활 풍수적으로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화장실 쪽 벽면에 불박이장이나 장롱 같은 큰 가구가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또 괜찮게 본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마주 보이는 곳에 거울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도 문을 통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간다는 이유인데,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된 거울의 반사작용이 입력된 까닭으로 본다.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 생활 풍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면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의식이 마음에 한 번 자리 잡게 되면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강단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 0

스도쿠 365 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7		2
	2		6			4
	9		4	5		2
			9		2	
5	9					8
	7		1			
1			4	2		7
	8		5		3	
2		6	7	3		4

5				2	6		4
	4			3		8	
8			4	9			
7	8	2	6	4			
		4			7		
			5		7	4	2
			9	7			3
	5		4			7	
4		3	1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영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이은정 한국맥넬티 회장

커피·드립백 대중화 이끈 주인공 “제약·바이오 분야까지 사업 확장”



커피 벨트(Coffee belt)가 아닌 한국에서 만든 'K-커피', 'K-음료'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여성 벤처기업인이 있다. 지난해 제 61회 무역의 날엔 '7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커피 등으로 해외에 수출한 금액은 840만 달러 어치에 달한다. '수출 1000만 달러' 기록 달성도 머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커피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이 회사 커피를 마시지 않은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바로 한국맥넬티와 창업주 이은정 대표이사 회장의 이야기다.



맥넬티 스테비아 당제로 커피믹스.



맥넬티 핸드드립 커피 버라이어티 선물세트.



맥넬티 행복을 주는 커피 블루마운틴 스페셜티 블렌드 분쇄 원두.

“K-팝 등 'K-컬처'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부터 매년 해외 전시회를 5~6군데 나간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전 해외로 나가야한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동 지역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코로나 직전까지 검토했던 해외 생산 공장도 향후 시장 추이에 따라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국맥넬티 본사에서 만난 이은정 회장의 포부다.

이 회장은 최근엔 기존 제품 외에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스테비아를 이용한 커피믹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

“미국 아마존에선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 궁금해 미국 지인에게 시장 조사를 부탁했었다. 그랬더니 상위 20개 중 10개가 '설탕 제로' 제품이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비아 커피믹스, 디카페인 커피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설탕이 제로인 라떼, 핫초코도 내놨다. 복숭아, 청포도, 오렌지 등을 원료로한 건강차도 만들었다.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 20여 개국에 우리 제품이 나간다. 몽골에선 편의점에서도 맥넬티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필리핀에선 대형마트에도 들어간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산증인이자 커피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 중 한명이다. 대학 졸업후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처음 접한 사업 아이템이 커피였다. 당시 서울 명동 등엔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한잔에 900원짜리 커피를 셀프서비스로 팔던 시절이었다.

'카페 맥넬티'로 그가 직접 커피사업에 뛰어든 것이 1993년이였다. '한국맥넬티'는 1997년 탄생했다.

이 회장은 “한국 커피의 모든 변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봤다. 스타벅스가 진출하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최근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등장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편의점 커피도 가세했다. 커피는 대기업부



1993년 사업, 1997년 '맥넬티' 탄생
시장 추이따라 해외공장 다시 도전

스테비아·디카페인 커피믹스 개발
설탕제로 라떼·핫초코, 건강차 출시

클레오파트라 애용하던 '블랙커민'
식약처 인증... 특화제품 출시 예정

“커피서 번 돈 제약사업에 투자
난 다시 태어나도 기업인 할 것”

터 중소기업, 그리고 1인 카페 등 생태계가 무척 다양하다. 한국의 커피문화는 매우 유니크(독특)하다”고 말했다.

▲인스턴트 커피믹스 출시(2003년) ▲커피업계 최초 벤처기업 인증(2005년) ▲국내 커피업계 최초 코스타다 상장(2015년) ▲'500만불 수출탑' 수상(2021년) 등이 한국 맥넬티와 이 회장이 걸어온 길이다. 그는 '사람들이 왜 원두커피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한 대학과 티백을 개발, 시장에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일상화됐지만 이 회장이 일본으로 달려가서 가져와 국내에 선보인 것이 드립백 커피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바빠졌지만 드립해 마시는 커피는 풍미도, 건강에도 좋다. 종이 필터로 거른 커피는 혈관에 좋다. 드립 커피의 대중화에 (내가)조금은 기여한 것 같다.(웃음)”

'공정무역'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기 전 이 회장은 관련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제품(원재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사회운동이다.

주로 후진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해 온 커피는 대표적인 공정무역 아이템 중 하나다.

이 회장은 2019년엔 국제공정무역기구 명예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그는 “공정무역커피를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한다. 검증이 된 좋은 원료(제품)를 제값주고 사는 착한소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커피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커피 생산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이 되어 우리가 좋은 커피를 계속 마실 수 있다. 공정무역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맥넬티커피 온라인 공식몰 한쪽엔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 회장은 2013년초부터 2년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 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2025년이 마침 뱀의 해다. 뱀은 크면 허물을 벗는다. 이게 혁신과 맥을 같이 한다. 벤처는 혁신해야한다.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혁신해야한다. 창업하는 후배들은 가장 가까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절대 안주하면 안 된다.”

커피에서 시작한 이 회장은 바이오(맥넬티바이오)와 제약(맥넬티제약)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커피는 배우지 진회를 모델로 국내외에서 전방위로 사업을 펼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맥넬티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7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은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전년보다 더욱 성장해 9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설을 갖춘 맥넬티바이오 충북 증평공장에선 유산균, 발효효소, 플라젠, 곡물효소, 홍삼정 등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애용했다는 블랙커민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증을 획득, 이 원료를 활용한 특화제품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커피에서 벌어들인 돈 제약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도전하는 재미가 있다. 이게 벤처 아니냐(미소). 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다. 공정무역 등 커피 생태계를 만들고, 제약사업을 통해 인류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도전에서 얻는 기쁨이 어느 것보다 큰 것 같다. 난 다시 태어나도 기업인을 할 것이다.”

/글·사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국에 정보 유출될라’...대만, ‘안보 우려’로 딥시크 이용금지
▲빌 게이츠 “가상화폐? 전혀 쓸모 없어...스스로를 속이는 짓”
/사진 뉴시스

▲극우 정당 손잡은 독일 기민련, 거센 역풍 직면...전국서 시위
▲美 연이은 항공기 추락...필라델피아서 의료용 체트기 추락

▲中상무부 “WTO 제소·상응 조치할 것...美관세 강한 불만과 단호히 반대”
▲싱가포르 정부, 딥시크 수출통제 자국 우회 의혹에 “美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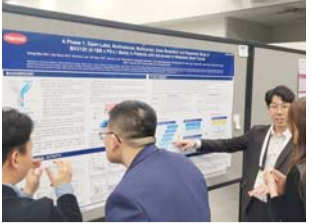


유통업계
밸런타인·새학기
실적개선 기대
니



Life

제약·바이오
글로벌 항암시장
진출 속도
L2



“다양한 역량 필요한 게임 아트... 사랑받는 ‘장수게임’ 목표”



새벽을 여는 사람들

‘플레이하드’ 변 대 영 게임 아티스트

“게임 아티스트는 혼자만의 그림을 그릴 순 없지만, 동료들과 함께 완성한 작품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든 변대영 게임아티스트(36)에게 ‘게임 아트’에 관해 문자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역사가 20년이 채 되지 않는 만큼, 그는 업계에서 시니어(고참) 아티스트로 분류된다. 특히 그는 원화나 일러스트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UI·이펙트 등 다양한 업무 역량을 겸비한 ‘제네럴리스트’다.

변 아티스트는 캐주얼 장르 모바일 게임을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인 ‘플레이하드’ 소속이다. 플레이하드는 500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한 ‘우르르용병단’, ‘히어로팩토리’ 등 글로벌 히트작을 여럿 선보인 강소 스튜디오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업계 ‘큰손’들로부터 투자 및 지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표현 범위가 한정된 캐주얼 장르에서 아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간소한 캐릭터, 배경, 기물 등이 게임의 작동방식과 매끄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각적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가 플레이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색감이나 동작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 아티스트는 “캐주얼 게임에서 아트는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포장지’와 같은 역할”이라며 “앱 스토어에 업로드된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게임 아이콘만 보고도 관심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게임 사이에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건 결국 게임에 관한 호기심”이라고 말했다.

◆ 다재다능 ‘제네럴리스트’

변 아티스트의 어린 시절 꿈은 만화가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만화 동아리 활동을 했고, 대학에서는 만화영상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게임 업계에 관심이 생겼다.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스페셜리스트(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력)’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가 게임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1년은 수월했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일을 쉬는 동안 시장은 급변했다. 업계 전체에 특정 업무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의 공급이 많아졌고, 취업 문은 좁아졌다. 변화한 업계에서 ‘제네럴리스트(다양한 분야에 직업적 역량을 갖춘 인력)’를 요구했다.

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이전 직장에서 만난 선배였다. 그는 다양한 업무 역량을 갖춘 선배의 조언에 따라 UI, 배경, 애니메이션 등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변 아티스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두루 갖추는 게 쉽지 않았다”며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평균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업계에서 배우는 게 많다. 다른 전문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의도가 있다. 전문가인 만큼 허투루 하는 부분이 없다.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 유효한지 살피고, 증명과 분석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다. 그런 분들을 계속 따라잡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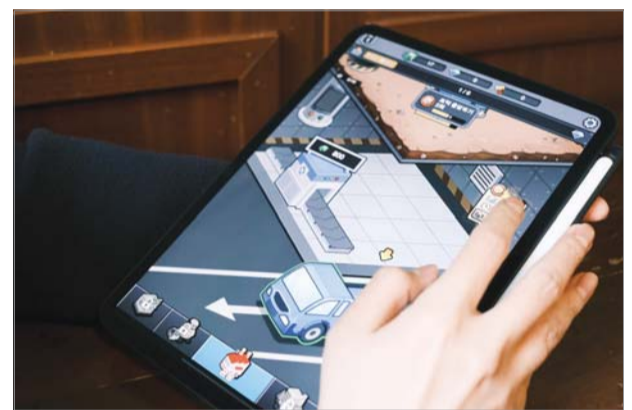
게임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을 묻자 변 아티스트는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꼽았다.



변대영 게임아티스트.



플레이하드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히어로팩토리’의 플레이 화면.



변대영 게임 아티스트가 시연 중인 ‘고철상팩토리’ 플레이 화면.



만화가 꿈꾸던 8년차 게임아티스트
UI,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역량 갖춰
여러 분야 배우며 ‘제네럴리스트’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타인과 소통능력
피드백 주고받으며 좋은 작품 만들어
AI 활용도 커져... 응용력도 역량으로

공격적 과금유도 보다 지속적 수익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 만들고 싶어

그는 “새롭게 업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려워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은 팀원과의 소통”이라면서 “타인의 피드백을 나의 작품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함께 작품을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팀원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만큼, 적극적인 소통 없이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게임 아트가 상업 미술인 이상,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릴 수는 없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요소를 만들더라도, 그 요소가 게임 플레이 경험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변 아티스트는 최근 미술 업계의 화두인 AI(인공지능)의 활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인공지능이 작가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활용성 높은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는 “최근 AI를 활용해 나무, 꽃, 책상 등 간단한 기물을 다양하게 양산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그래픽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 활용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게임 시장, 특히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AI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고, 실제 시장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보면 AI를 활용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라면서 “이미 상용 단계에 접어든 만큼 AI라는 도구에 적응하고, 응용하는 능력도 개인의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팬아트’ 쏟아지는 날 기대

변 아티스트는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게임 역시 상품인 만큼, 돈을 잘 버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며 “단순히 매출이 많은 게임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사랑받으면서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모델(BM)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회사에도 이익이 되지만, 유저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장수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것.

게임 역시 일종의 상품인 만큼, 생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게임을 개발하는 데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출시 이후에도 사용자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 지출이 발생한다.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이익이 필수적이다.

시장 포화로 경쟁이 심한 만큼, 업계에서는 유료 서비스 구매 없이는 다른 사용자에게 뒤처지게 되거나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운 ‘공격적인’ BM을 채택하는 게임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 피로감이 큰 만큼 사용자 이탈도 빨라진다.

반면 공격적인 BM을 포기하면 게임사는 사용자의 흥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개발 역량과 비용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이 탄생한다.

변 아티스트는 게임이 사랑받는다라는 증거로 ‘팬아트(2차 창작물)’를 꼽았다.

그는 “캐주얼 게임이라는 장르는 서브컬처 게임과는 달리 팬아트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그런데도 팬아트 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만든 게임이, 내가 만든 캐릭터가 정말로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다. 언젠가 우리 게임의 팬아트가 쏟아지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제기
▲쇼트트랙 대표팀, 결전지 하얼빈으로... “중국 텃세 넘고 금빛 질주 펼친다” /사진 뉴스스

▲양민혁, QPR서 성공적 데뷔전 치러... “강렬한 유효슈팅 한 방!”
▲투타겸업 준비하는 오타니...다저스 감독 “5월 마운드 복귀가 적절”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 15개국 1위·전세계 3위
▲국립발레단 조연재, 입단 7년 만 수석무용수 승급